



혁신은 '허용된 사회'에서 피어나고, '통제된 사회'에서 위축된다. 자유롭게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문화가 있어야 창의성이 나온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검열과 규제로 예술과 학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으며, 관료적 통제가 창의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젊은이들은 안정적인 진로만 추구하고, 창작 활동은 '콘텐츠'는만 들어내지만 '문화'를 만들지 못한다.

싱가포르의 혁신은 토착적이라기보다 외주화된 구조다. 많은 R&D 활동과 특허가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위험을 기피한다. 통계상으로는 혁신 강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생적 역량이 취약하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창의경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홍콩은 예술·문화 수출입, 예술인 비중, 글로벌 문화 영향력 등에서 싱가포르를 앞선다. 싱가포르는 예산을 투입하지만 통제는 여전히 하고, 문화는 성장하지 못한다. 두 도시는 '기업가 자본주의'와 '국가 자본주의'의 대조적 사례다. 싱가포르에서는 국영기업이 금융과 운송 등 핵심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산업가치의 44%에 그쳐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반면 홍콩은 진입 장벽이 낮고, 중소기업의 역할이 더 크며, 시장 경쟁이 활발하다. 싱가포르에서는 경제가 '연출'되고, 홍콩에서는 경제가 '발현'된다.

이 차이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철학의 문제다. 한쪽은 계획을 통해 성장했고, 다른 쪽은 자유 속에서 성장했다. 계획된 성장은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자율성과 창의성이 희생된다. 반대로 자유 속에서의 성장은 위험을 동반하지만, 효율성과 혁신이라는 장기적 경쟁력을 제공한다.

진정한 번영은 통제보다 자유에서 비롯된다. 거버넌스가 아닌 자율, 규제가 아닌 신뢰, 계획이 아닌 실험이 미래의 경제를 만든다. 교역하고, 창조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자유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다.

번역: 김시진

출처: <https://mises.org/mises-wire/economic-success-singapore-and-hong-kong>